Interview

국가환경경영대상 에너지혁신 부문 수상

심영인 사장 지속적 '행복경영' 실천 결과

심 영 인
(주)화승인더스트리 대표이사

OPP, PET, 통기성 필름 및 증착필름 등을 생산하는 종합필름생산기업으로 일반 소비재용 포장 필름에서 산업용 특수필름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과 산업 곳곳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포장산업에 한축을 담당하며 발전하고 있는 (주)화승인더스트리가 지난 달 13일 『국가환경경영대상』 전문상 시상식에서 에너지 혁신부문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969년 (주)풍영화성의 설립에 의한 국내최초 케미컬슈즈 공장으로 출발, 1990년 석유화학계열 필름생산 기업으로 거듭난 이래 외형성장과 품질 등 모든 면에서 국내 포장필름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주)화승인더스트리 심영인 사장을 통해 활약상을 살펴본다.

"원가절감과 환경개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화승인더스트리의 10여년의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며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환경경영대상 전문상 에너지 혁신부문 산자부장관상을 수상한 화승인더스트리 심영인 사장은 활발한 사내 제안 제도와 전사적인 원가절감활동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뿐만 아니라 전사원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전하면서 친환경 경영과 원가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한 성과를 국가환경대상을 통해 확인받을

▲ 친환경 제품 생산애 주력하고 있는 화승의 설비 현장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심영인 사장은 이와 같은 화승인더스트리의 활동은 경영이념인 '행복경영'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화승인더스트리의 "모두의 행복추구"라는 슬로건은 단순한 이윤추구활동 외에 직원의 복지에서 주주의 가치 증진, 고객과의 약속된 품질 이상을 전달한다는 고객행복 및 산업발전에 더해 특히나 제조업체에서 간과하기 쉬운 환경과 자연에 대한 배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익창출을 위한 기업의 당연한 활동들, 원가절감이나 품질을 위한 활동들은 고객과 주주 혹은 산업에 보다 좋은 품질, 싼 가격을 통해 행복을 전달해 주겠지만 그와 더불어 이왕이면 환경의 행복도 같이 고려해 생각한다는 것이 화승인더스트리가 고민해 온 부분입니다."

심영인 사장은 "환경친화경영은 이미 특정기업만이 하는 행위 혹은 일부 우수기업만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친환경경영은 기업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활동이 아니라 원가를 감소시키는 활동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는 피력한다.

또한 자원의 절약을 위한 신개념의 기술을 탐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한다.

"원가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 요인을 찾기 위한 아이디어로 시작된 개선활동에 환경보호를 위한 우리의 가치를 더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에너지절감효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및 사업장의 환경개선 효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축열 냉방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기료가 저렴한 심야시간대에 축열방식을 이용하여 냉동제조시설의 전기료를 절감한 사례는 국내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화승인더스트리의 전력비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자원절약을 위한 신 개념 기술을 국내외에 전파하는데 기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심영인 사장은 "이번 수상은 에너지혁신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생분해성 필름 등의 친환경소재 연구개발로 친환경 제품의 생산을 통해 최고의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행복경영의 이념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각오를 다졌다. ko